

제2절 세시풍속의 사례⁵⁰

1. 농촌형 사례[울진읍 고성1리의 사례]

1) 정월

(1) 설

① 차례

정월 초하루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차례 때 사대봉사를 했다. 차례상에는 메, 갹, 탕, 어물, 적, 전, 과일, 제주 등을 올렸다. 메 대신 떡국을 올리는 가정도 있었다. 이럴 경우 떡국제사라고 하여 갹을 따로 올리지 않았다. 어물은 명태, 가자미, 열기, 대구, 방어, 상어, 문어, 대게 등을 올렸다. 모든 어물은 한 그릇에 담았지만, 상어와 문어, 대게는 귀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로 담았다. 주민들은 대게를 차례상에 올리면 “게가 집게로 재산을 집어 올리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믿었다. 한편 상어를 제외한 모든 어물은 토막 내지 않고 조리해서 차례상에 올렸다.

채소는 대개 콩나물, 무, 고사리, 도라지, 냉이, 시금치, 숙주나물[녹두나물] 가운데 다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를 삶거나 데쳐서 썼으며, 국물은 순가락을 적실 정도의 양만 대접에 담아냈다. 탕을 끓일 때는 소고기와 무, 명태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했다.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육탕과 어탕, 소탕을 따로 장만해 차례상에 올리기도 했다. 떡은 ‘찰떡[인절미]’, ‘기정떡[기지떡]’, 절편 등을 올렸다. 인절미는 쌀가루를 시루에 쪄서 떡메로 친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 콩가루를 묻힌 떡이다. 콩가루는 보통 볶은 콩을 빻아 체에 쳐서 만들었으며, ‘찰콩’으로 새파란 콩가루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기지떡은 ‘술떡’이라고도 불렸다. 쌀가루에 막걸리나 술약을 넣어 섞은 뒤, 천으로 덮어 따뜻한 방에 두면 기포가 일어났다. 이를 천을 깐 시루에 봇고 그 위에 맨드라미와 미나리 잎, 버섯, 가늘게 채 썬 대추 등을 얹어 쪄냈다.

전은 가자미 등의 어물에 밀가루와 달걀을 묻힌 뒤 자작하게 부은 기름으로 부쳤다. 적은 주로 소고기를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라 부친 뒤에 세 장, 또는 다섯 장을 올렸다. 차례상에는 보통 유과를 올렸지만, 가정에 따라 ‘과상’을 올리기도 했다.

제물을 모두 진설하면 가장이 향로에 숯을 넣고 그 위에 향나무 조각을 올려 향을 피웠

50. 세시풍속의 사례는 울진 지방의 생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농촌, 해촌, 산촌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다. 그런 다음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했다.

② 세배

차례상을 물리고 나면 집안의 어른들께 세배했다. 어른들은 세배를 받으며 “이번 해에도 하는 일 모두 잘되게.”, “올 한 해 건강하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게.”라고 덕담을 했고, 아이들 일 경우 세뱃돈을 조금씩 주기도 했다.

가정에 따라 차례를 지내기 전에 세배하기도 했다. 집안의 차례를 마치면 가까운 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했다. 가까운 친척 집을 방문할 때는 보통 차례를 위해 담가놓았던 술을 한 병씩 들고 찾아뵈었고, 동네 어른을 찾아뵐 때는 풍년 초, ‘백양’ 등의 담배를 사서 갔다.

(2) 초닷새

① 패일

정월 초닷새를 패일이라고 했다. 이날 집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출입을 삼갔다. 여성 역시 집안에서 근신하도록 했다.

(3) 열나흘

① 오곡밥 먹기

열나흘 저녁에는 여러 곡식을 넣고 지은 오곡밥을 먹었다. 오곡밥을 먹으면 그 해에 오곡밥의 재료로 쓴 곡식 농사가 잘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맵쌀, 찹쌀, 차좁쌀, 기장쌀, 팥 등의 다섯 가지 곡식 외에도 다른 곡식이 있으면 더 넣어서 밥을 지었다.

(4) 대보름

① 우물물 뜨기

대보름 새벽에 동네 우물에서 가장 먼저 물을 길어와 찰밥을 지으면 그해 농사가 잘된다 고 했다. 그래서 주부들은 서로 먼저 물을 긫기 위해 자정이 되기 전에 우물 근처로 나가 기다리기도 했다.

우물에서 물을 긫고 나서는 자신이 가장 먼저 물을 길어 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푸라기로 땅리를 틀어 우물 안에 던져 놓았다.

② 가신대접/찰밥먹기

찰밥은 대보름 새벽에 먹어야 좋다고 여겨서 여성들은 동이 트기 전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찰밥을 지었다. 찰밥을 먹을 때 첫술을 반드시 김에 싸서 먹는데, 이를 복쌈이라고 했다. 찰밥을 먹기 전에 먼저 성주신이 거처한다고 여기는 마루에 성주상을 차렸다. 제물은 찰밥과 간, 묵나물을 올렸으며, 가장이 술을 올린 뒤 재배하고 집안의 평안을 축원했다. 또한 양푼에 찰밥을 가득 담아 도장방 안의 곡식단지 위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③ 귀밝이술 마시기

찰밥을 먹기 전에 막걸리를 조금씩 나눠마셨다. 이렇게 하면 귀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만 듣는다고 했다.

④ 부럼깨물기

귀밝이술을 마시면서 호두나 밤, 옛 등을 소리 나게 깨물었다. 이때 “부스럼 깨물자! 부스럼 깨물자!”라고 하면 일 년 동안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고 치아가 튼튼해진다고 했다.

⑤ 보리타작

아이들은 열나흘 저녁에 수수깡으로 보리와 조, 지게, 안경 등을 만들어 거름더미에 꽂았다.

대보름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도리깨를 들고 돌아다니며 “보리 두드리자! 보리 두드리자!”라고 하면서 미리 꽂아놓았던 곡식과 농기구 모형을 타작하듯이 내리쳤다. 이를 “보리타작한다.”라고 했다. 어른들은 “보리타작을 하면 그해 보리농사가 잘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도록 권장했다.

⑥ 찰밥얻어먹기

이날 아홉 집에서 찰밥을 얻어먹으면, 그해 운수가 좋다고 여겨 아이들은 삼삼오오 어울려 바가지를 들고 찰밥을 얻으러 다녔다. 아이들은 집마다 돌며 얻어 온 찰밥을 디딜방앗간에 모여 손으로 집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일 년 내내 손거스러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⑦ 소점치기

대보름 저녁이 되면 소에게 찰밥과 나물을 주면서 한 해 농사를 점쳐보기도 했다. 소가 찰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

⑧ 개보름쇠기

개는 일 년 동안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한다고 해서, 대보름에는 종일 밥을 주지 않았다.

⑨ 달맞이

마을 앞산이나 너른 마당에서 달맞이했다.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은 대보름달이 뜨면 신수를 봐준 사람이 일러준 대로 양밥을 했다. 양밥하는 방법은 보름달을 보고 절하기, 손톱과 발톱을 깎아 속옷으로 감싼 뒤 태우기 등으로 다양했다.

⑩ 망우리돌리기

남자아이들은 대보름 밤에 망우리돌리기를 했다. 가능한 한 달과 가까운 데서 돌리기 위해 산꼭대기에서 했다.

대보름이 다가오면 남자아이들은 깡통의 옆면에 구멍을 총총 뚫어서 불이 잘 불도록 하고 깡통의 위쪽에는 철사를 길게 연결해 손잡이를 만들었다. 깡통 안에는 소나무 옹이와 송진, 숯 등을 넣고 불을 지폈다.

⑪ 마을총회

매년 한 차례씩 대보름에 마을총회를 열었다. 마을총회를 동네 공사라고 하는데, 마을의 중요한 연중행사 중 하나였다. 회의에서는 일 년간 운용한 마을 기금을 결산하고 새해의 마을 운영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장 등 마을의 임원을 선출했다. 회의가 끝나면 주민들은 준비해둔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풍물을 치거나 윷놀이를 즐겼다.

⑫ 윷놀이

마을총회가 끝나면 주민들이 참가하는 윷놀이대회를 열기도 했다. 윷놀이는 개인별로 참가해서 이긴 사람끼리 계속 겨루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승한 사람에게는 비누나 휴지, 치약 등의 상품을 줬다.

(5) 월내

① 복조리걸기

주부들은 집안에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마루나 안방에 복조리를 걸어두었다. 주로 싸리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복조리를 걸었다. 집안의 기운이 불처럼 일어나라는 의미에서 복조리 안에 성냥을 넣어두기도 했다.

② 신수보기

설날부터 대보름 사이에 가족의 신수를 봤다. 신수는 마을에서 한학에 밝은 어른이나 마을 내의 일관, 혹은 인근의 무속인을 찾아가서 봤다.

③ 텃제

설부터 대보름 사이에 텃제를 지냈다. 대개 설 오후 무렵에 많이 지내는데, 이 시기가 새해 첫날로 가장 깨끗한 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텃제는 집안의 가신을 모두 위하는 제사로서 텃제를 정성껏 지내야 한 해 동안 가정이 평안하다고 믿었다.

날이 정해지면 사나흘 전부터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다. 금줄은 가장이 꼳 윈새끼의 사이사이에 한지를 꽂아 만들었다. 집 앞에 금줄이 쳐지면 이웃 주민들은 그 집을 방문하지 않고 집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했다. 텃제를 지내는 가정의 부부는 잠자리를 피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는 등 부정이 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제수는 울진장에서 구입했다. 이때 가장 좋은 물건으로 고르고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 제물은 메, 갱, 떡, 어물, 과일, 제주 등을 마련했다. 떡은 주로 백설기를 만들어서 시루째 상에 올렸다.

텃제를 지낼 때는 지신, 성주, 조왕 순으로 위했다. 지신상과 성주상은 성주를 매 놓은 곳에 차렸고, 조왕상은 부엌의 솔뚜껑을 뒤집어 놓고 차렸다. 지신상과 성주상에는 메, 갱, 떡, 어물, 과일, 제주 등을 올리고 조왕상에는 메와 떡, 숯, 제주만 올렸다. 지신상에 올린 메는, 오방지신을 염두에 두고 큰 양푼에 밥을 가득 담은 뒤에 숟가락 다섯 개를 꽂았다. 가정에 따라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기도 했다.

텃제는 가장이 주관했다. 이와 달리 지신과 성주제사는 가장이 주관하고 조왕제사는 주부의 비손으로 갈음하는 가정도 있었다. 제사가 끝나면 가족들끼리 음복을 했으며 이튿날 금줄을 걷어낸 뒤 남은 제물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

④ 지신밟기

대보름 명절 중에 날을 잡아서 지신을 밟았다. 걸립패는 팽과리, 장구, 징, 북, 소고 등의 치배와 포수, 할미 등의 잡색으로 구성했으며, 총인원은 열댓 명에서 스무 명 정도였다.

2) 봄

(1) 이월

① 초하루, 영등제

이월 초하루에 영등할매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일부 가정에서 영등할매를 모셨다.

제물로는 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떡은 일반적인 시루떡으로, 이날 만드는 것은 특별히 ‘영등떡’이라고 불렸다. 영등날 아침 일찍 장독대에 영등떡을 시루째 놓고 그 옆에 물 한

그릇을 차린 뒤 영등제를 지냈다. 주부가 제사를 주관했으며, 제물을 진설한 뒤 비손을 하면서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어서 영등할매, 가장, 집안 어른, 주부, 자식 순으로 소지를 올리며 건강을 기원한 뒤 떡을 조금 떼어 사방으로 던졌다. 영등떡은 복이 들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만 먹었다.

② 입춘, 입춘첩쓰기

입춘에는 입춘첩을 써서 ‘들입入’자 모양으로 대문에 붙였으며, 주로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많이 썼다. 입춘첩을 붙이면 귀신이나 액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③ 장담그기

이월 보름부터 그믐까지 장을 많이 담그는데, 이틀과 아래에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인다고 해서 담그지 않았다.

3) 여름

(1) 사월

① 청명, 한식, 산소손질하기

이날은 집안의 남성들이 별초하거나 잔디를 새로 입히는 등 산소를 손질했다. 이날은 산소를 손질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비석이나 상석을 미리 주문해두었다가, 이날 설치하기도 했다.

② 초파일, 절에 가기

초파일에는 평소 다닌던 절을 찾았다. 연등을 구입해서 매달고 그 밑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달아 늘어뜨렸다. 연등을 달고 가족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③ 소만, 영풀베기

소만 무렵에 마을의 원로와 임원들이 협의해서 풀 베는 날을 정해 알려주었다. 이를 “영내린다.”라고 했다. 참풀은 작두로 잘라서 바로 논에 깔았고, 잡풀은 거름더미에 묻어두었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꺼내 논에 깔았다.

(2) 오월

① 단오, 약쑥베기

단옷날 정오 무렵에 여성들은 마을 인근의 야산이나 구릉에 가서 약쑥을 뜯어와 짚으로 엮은 뒤 그늘에 매달아 두었다. 단오에 뜯어 온 약쑥은 특히 약효가 뛰어나다고 믿어 상비약으로 많이 사용했다. 약쑥에 막걸리를 뿌려서 말리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고 했다. 단오 아침이면 여성들은 “머릿결이 좋아지고 좋은 향기가 난다.”라고 여겨 궁궁이와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또한 궁궁이를 머리에 꽂았다. 이렇게 하면 뱀이나 벌레가 달려들지 않는다고 여겼다.

② 그네타기, 씨름

단오가 되면 남대천에서 그네를 타고 씨름을 했다. 씨름대회는 보통 당일에 끝났지만, 씨름에 참여한 선수들이 많으면 이삼일씩 씨름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씨름대회의 상품은 송아지와 양은솥, 수건 등이었다. 씨름판이 벌어지는 동안, 여성들은 그네를 뛰었다. 1959년 태풍 사라호의 피해를 보기 전까지 남대천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았다. 크고 가지가 튼튼한 소나무를 골라 단오 전에 그네를 매어두면 이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남대천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도 그네를 타러 나왔다.

(3) 유월

① 삼복, 복제

복날이면 농사를 짓는 집에서 복제를 지냈다. 복제를 지낼 때는 복떡을 만들었다. 주로 노치를 부쳤지만, 형편이 되는 집에서는 백설기를 만들기도 했다. 복떡을 장만하면 먼저 조상에게 떡을 올린 뒤에 가장이 논으로 가져가서 복제를 지냈다.

논에 도착하면 준비한 복떡을 논 가운데에 묻고 한지를 매단 대나무를 꽂은 뒤에 풍농을 기원하며 절을 했다. 복제를 지내고 돌아가면 아이들이 금세 복제 지낸 자리를 파헤치고 복떡을 꺼내먹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논 주인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척했다.

4) 가을

(1) 칠월

① 월내, 풋굿

논매기를 마칠 무렵이면 마을의 임원들이 ‘풋구 먹는 날’을 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당일 아침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모이면 풍물패를 앞세우고 성황당으로 가서 주과포를 올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한바탕 신명 나게 풍물을 친 뒤 풋굿을 하는 장소로 이동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술과 음식을 먹고 풍물을 울리며 하루를 즐겼다.

② 외서리

밭매기를 마치면 같은 연배의 며느리들끼리 인근의 과수원이나 원두막으로 과일을 사 먹으러 갔으며, 이를 외서리라고 불렸다.

(2) 팔월

① 추석, 성묘, 차례

팔월 초순 무렵이면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했다. 추석 아침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냈다. 제물은 설 차례와 거의 같지만 햅쌀로 메를 짓고 송편을 빚었으며 곶감 대신 반시와 같은 햇과일을 올렸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메, 갹, 과일, 포, 제주 등을 쟁겨 가족들과 함께 성묘하러 갔다.

5) 겨울

(1) 시월

① 월내, 시제지내기

시월에는 문중별로 시제를 지냈다. 문중별로 시제를 지내는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렸다. 초현은 종손이 맡고, 아현과 종현은 문중 내에서 학식이 높고 문중일에 많이 참여한 어른 중에서 연장자가 맡았다.

시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포와 두루마기를 갖춰 입었으며 홀기에 따라 시제를 진행했다. 시제를 지낸 뒤 참가자들은 나이별로 자리를 잡고 앉아 ‘무름밥’을 함께 먹으면서 문중의 현안을 논의했다. 무름밥은 콩가루를 묻혀 삶은 시래깃국에 쌀밥을 넣고, 그 위에 고

추장 한 숟갈과 찐 간고등어를 한 토막씩을 올린 비빔밥이다.

(2) 동짓달

① 동지, 팥죽먹기, 성주고사

동지에는 집마다 팥죽을 끓여 먹었다. 동지는 드는 시기에 따라 애기동지, 중동지, 노동지로 구분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애기동지가 든 해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여겨 팥죽을 쑤지 않았다. 또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노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노인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여겨서 역시 팥죽을 먹지 않았다.

팥죽에 새알을 넣어 먹기도 했다. 새알은 찹쌀가루에 따뜻한 물을 붓고 반죽을 한 뒤, 손바닥으로 비벼 동그랗게 빚어 만들었다. 팥죽에 든 새알을 자기 나이만큼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팥죽을 다 쑤면 먼저 한 그릇을 떠서 성주 앞에 놓았다. 그런 다음 집안 곳곳에 팥죽이나, 팥죽을 쏟 때 미리 펴 둔 팥물을 뿌렸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잡귀와 액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여겼다.

(3) 설달

① 그믐, 묵은세배하기

그믐에는 묵은세배를 위해 친척들이 큰집에 모였다. 해가 지면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묵은세배를 드렸다. 한편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여겨서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불을 켜두고 친척들끼리 먹을거리를 나눠 먹거나 육놀이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여성들은 설 차례 음식을 장만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② 동제

그믐에는 마을의 평안을 위해 동제를 지냈다.⁵¹ 이 마을에는 성황지신과 토지지신이 좌정해 있으며, 성황지신은 남신, 토지지신은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이들을 ‘할배신’, ‘할매신’으로 불렀다.

제관은 동제를 지내기 닷새 전에 이장과 어른들이 모여서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 가운데 세 명의 제관과 집사, 제물을 담당할 ‘제수집’을 선출했다. 최근에 상례를 치른 가정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병치례를 하는 사람은 제관 선정에서 제외했다.

51. 본래 설달그믐에 동제를 지냈지만, 2000년대 중반에 대보름으로 날을 바꿨다.

제관들은 동제 사흘 전에 성황당과 제관집, 제수집 순으로 금줄을 쳤다. 금줄은 제관들이 원새끼를 꼳 다음 사이사이에 한지를 꽂아 만들었다. 금줄을 치면서 주변에 황토를 드문드문 뿌렸다. 제수 비용은 마을 기금으로 마련했다. 제수는 제관이 올진장에서 삼다. 제수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매하되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 제관이 제수를 제수집에 갖다주면, 제수집의 주부는 제수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했다가 입제일에 조리했다. 제물을 장만할 때는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가능한 한 말수를 줄였다. 제물로는 메, 나물, 어물, 떡, 과일, 대구포, 제주 등을 준비했다.

그믐 저녁이면 제관들은 목욕재계하고 제수집에 모여 있다가 자시가 되면 제물을 들고 성황당으로 향했다. 성황당에 도착하면 먼저 진설하고, 바가지에 담긴 물을 사방으로 뿌리며 부정을 쳤다. 그런 다음 분향강신을 하고 초헌을 한 뒤에 독축을 했다. 이어서 아헌과 종헌을 하고 소지를 올리면 제사가 끝났다. 제관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한 뒤 제물을 챙겨 제수집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고 점심 무렵에 주민들이 제수집이나 마을회관에 모이면 함께 음복한 다음, 제시 비용을 결산하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

6) 윤달

주민들은 윤달을 남의 달이나 공달, 또는 남는 달이라고 불렀다. 평소에는 꺼리던 일도 윤달에 하면 탈이 나지 않는다고 여겨 산소를 이장하거나 이사, 집수리 등을 했다. 연로한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수의를 장만했다. 수의는 주로 삼베로 만들었지만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명주로 만들기도 했다. 삼베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정은 광목으로 수의를 만들기도 했다.

2. 해촌형[죽변3리 사례]

1) 정월

(1) 설

① 차례

설에는 주부를 비롯한 집안 여성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차례상에 올릴 제물 가운데 미리 마련해둔, 제주와 떡, 전 등을 제외한 것들을 조리했다. 제물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이면 집 안의 남성들이 차례상을 펴고 병풍을 두른 뒤에 지방을 써 붙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제물을 건네주면 남성들이 받아서 정성스레 진설했다. 설 차례 때 일반 기제사와 같이 메와 쟁을 올

리는 집도 있고, 메 대신 떡국을 올려서 갱을 생략하는 ‘떡국제사’를⁵² 지내는 집도 있었다. 집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메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제물이 준비되면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② 세배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나면 세배를 했다. 먼저 집안의 가장 웃어른이 자손들의 세배를 받으면 덕담을 해주었다. 집안에서 세배를 마치면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세배를 갔다. 이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담배나 술 등의 선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세배가 모두 끝나면 각 가정에서 윷놀이하며 설 명절을 보냈다.

③ 널뛰기

설이나 대보름에는 여자아이들이 널을 뛰며 놀았다. 널은 주로 마을 앞에 있는 ‘큰개암불’에서 많이 뛰었다. 이곳은 넓고 바닥이 평평해서 여러 아이가 어울려 놀기 좋았다.

(2) 초닷새

① 패일

정월 초 닷새는 ‘패일(敗日)’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3) 대보름

① 우물물뜨기

대보름에는 우물물을 가장 먼저 떠 온 집이 한 해 동안 식구가 모두 건강하고 농사와 어업이 잘되는 등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했다. 대보름 새벽이 되면 주부들은 가장 먼저 물을 떠 오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경쟁적으로 우물로 향했다. 우물에서 가장 먼저 물을 뜯 사람은 지푸라기로 ‘따뱅이[똬리]’를 틀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왔다 갔다는 것을 표시했다. 길어온 물로는 찰밥을 지어 먹었다.

② 오곡밥먹기/성주고사/찰밥먹기

대보름 새벽에 떠온 물을 이용해 이날 먹을 찰밥과 묵은 나물을 요리했다. 이날 먹는 찰

52. 을진지역에서는 설 차례를 지낼 때 메를 올리면 ‘메제사’, 떡국을 올리면 ‘떡국제사’라고 했다.

밥은 흔히 ‘보름밥[오곡밥]’이라고 했다. 오곡밥에는 기장과 수수, 콩, ‘차조[차좁쌀]’, 대추 등과 맵쌀이 들어갔다.

찰밥은 보름 아침에 찹쌀과 수수, 대추, 밤, 팥 등을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넣어서 지었다. 찰밥을 다 지으면 성주고사를 지냈다. 찰밥과 나물, 어물, 과일 등의 제물을 형편에 맞게 정성껏 차린 다음, 가장이 절을 하고 술을 올렸다. 그리고 모든 식구의 사주를 부르고 소지를 올리면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었다. 찰밥은 성주고사를 지낸 다음에 먹었다. 찰밥을 먹을 때 첫술을 잎이 넓은 나물이나 김에 싸서 먹으면서 “복쌈 먹는다”라고 했다. ‘복쌈’을 먹을 때는 “복쌈 싸먹자! 복쌈 싸먹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 년 내내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다.

③ 고춧가루 먹지 않기

아침에 찰밥을 먹을 때는 김치를 비롯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를 먹으면 몸이 자꾸 따끔거린다고 했다.

④ 찬물을 마시지 않기

아침에 찰밥을 먹을 때 찬물을 마시면 한 해 동안 소나기를 자주 맞는다고 했다.

⑤ 귀밝이술마시기

가족들이 보름밥을 먹기 전에 귀가 밝아지라고 귀밝이술을 한 잔씩 마셨다.

⑥ 부럼깨물기

보름 아침에 감자나 옛 또는 무를 깨물어 먹는 것을 “부스럼 깨문다.”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⑦ 보리타작

대보름 전날 아이들이 마당에서 수수깡으로 만든 보리나 조 같은 곡식 모형을 만들어 거름더미에 꽂아놓고 보리타작 놀이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몇 섬이나 났구나!”, “보리가 잘 됐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⑧ 콩점치기

콩점치기는 한 해 동안 비가 얼마나 올 것인지를 점쳐서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것이다. 콩점치기는 먼저 수숫대를 꺾어서 반으로 쪼갠 다음 콩 열두 개를 조금씩 간격을 두고 채워 넣었다. 그리고 쪼갠 수숫대를 다시 하나로 합친 뒤 실로 꼼꼼하게 감아서 물동이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아침 수숫대를 건져서 콩이 얼마나 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첫 번째 콩이 많이 불었으면 정월에 비가 많이 올 것이고, 전혀 불지 않았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방식으로 일 년 열두 달의 강수량을 점쳤다.

⑨ 짬고사

‘짬고사’는 한 해 동안 짬에서 미역이 많이 생산되기를 기원하는 고사이다. 새벽에 큰 양 푼에 ‘서숙[조]’과 막걸리를 준비하여 마을 앞에 있는 짬 중에서 자신이 미역채취를 배당받은 곳으로 가서 준비한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한 뒤 조밥을 마치 씨 뿌리듯이 골고루 바다에 뿌렸다.

⑩ 소점치기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대보름 아침, 여물 대신 찰밥과 나물을 키에 담아 소에게 갖다줬다. 이때 소가 어느 것을 먼저 먹는지에 따라 그해 풍흉을 점쳤다. 만약 소가 찰밥부터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부터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

⑪ 찰밥얻어먹기

대보름 오후에 아이들이 바가지를 들고 찰밥을 얻으러 다녔다. 찰밥이 바가지 가득 차면 디딜방앗간에 모여서 함께 먹었다. 손으로 찰밥을 먹으면 한 해 동안 ‘손가시[손거스러미]’와 벼짐이 나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어,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열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집어 먹었다.

⑫ 개보름쇠기

보름 아침에는 개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 보름날 개를 굶겨야 여름에 벼룩이 덜 생긴다고 여겼다. 온종일 굶긴 개에게는 달이 떠올라야 밤을 주거나 열엿새부터 밤을 주었다.

⑬ 달맞이

달이 뜰 무렵이면 주민들은 ‘앞재산’과 ‘마골산’에 올라 달맞이를 했다. 달맞이하면서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빌었다. 달맞이하러 온 사람 중에는 새해 신수가 좋지 않다고 하여 액막이로 물을 떠 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다.

⑭ 달점치기

달을 보면서 한해의 강우량을 점치기도 했다. 달이 붉으면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들고, 달이 희면 비가 적당하게 와서 농사가 잘된다고 했다.

⑯ 망우리돌리기

대보름 밤에 아이들이 해안가나 ‘올미등’에 모여 망우리 돌리기를 했다. ‘망우리’는⁵³ 깡통이나 짚단으로 만들었다. 깡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뒤 철사나 굵은 끈을 끼워서 돌리기 쉽게 만들었다. 깡통 안에는 바짝 마른 솔가지나 솔방울을 송진과 함께 넣어 불이 오랫동안 타오르도록 했다. 깡통이 흔해지기 전에는 짚단으로 망우리를 만들었다. 단단하게 묶은 짚단에 끈이나 새끼를 매달아 돌렸다.

대보름이면 주민들이 모여서 ‘척사대회’를 했다.

(4) 열엿새

① 귀신단 날

대보름 다음 날을 “귀신이 내려와 땅에 닿는 날”이라고 해서 ‘귀신단 날’이라고 했다. 이 날은 집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에는 귀신이 활발히 돌아다닌다고 하여 체를 대문에 걸어두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대문에 걸려 있는 체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으면 달아난다고 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신발을 뒤집어 놓거나 아예 방안에 들여놓았다. 마당까지 들어온 귀신이 신발을 하나씩 신어보고 자신의 발에 맞으면 가져가는데, 그러면 신발 주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이다.

② 지신밟기

대보름 다음 날이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신을 밟았다. 지신밟기를 하는 풍물패는 꽹과리 두세 명, 징 한 명, 장구 한 명, 북 한 명에 ‘벽구[소고]’ 다섯 명 정도의 치배와 영감과 할미, 각시, 곱사, ‘총쟁이[포수]’ 등으로 분장한 잡색들로 구성되었다[놀이편 해당 항목 참조].

(5) 월내

① 복조리걸기

정초에 복조리를 걸어두면 “집안에 복이 잘 들어온다.”라고 해서 집안 한쪽에 걸어두었다. 복조리에는 성냥이나 실타래 등을 함께 넣어두었다. 성냥이나 실타래는 일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성냥은 집안의 운이 불처럼 일어나라는 뜻에서 넣었고, 실타래는 식구들이 무병장수하라는 뜻에서 넣은 것이었다.

53. ‘망우리’는 ‘망월(望月)’의 울진말이다. 달맞이하면서 돌리는 것이라서 불붙인 짚단 또는 땔감을 넣어서 불을 붙인 깡통을 망우리라고 불렀다.

② 신수보기

정초에는 많은 사람이 한 해 신수를 보았다. 보통 읍내의 무당이나 ‘일관쟁이’, 또는 마을에서 한학에 밝은 분을 찾아가 토정비결을 보는데, 이를 “청낭계 본다”라고 했다.⁵⁴ 토정비결을 볼 때는 가족 모두의 일 년 신수를 같이 보았다. 토정비결을 본 사람들은 사례로 술이나 담배, 약간의 돈 등을 건넸다.

③ 배성주고사

선주들은 정초나 대보름에 날을 잡아 한 해 동안 무사히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성주고사’를 지냈다. ‘배성주’는 배를 관장하는 성주로서, 신체는 배에 한지를 붙여놓고 실을 매어놓은 것이었다. 배성주를 처음 모시는 일은 진수식 때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불렀다. 이 마을에서는 ‘삼율’에 사는 무당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성주고사 제물은 메, 탕, 나물, 어물, 과일 등이었다. 고사를 지내는 날 새벽에 먼저 선주가 성황신에게 고했다. 당에 도착하면 주과포를 진설한 뒤 동신에게 절을 하고 술을 올리면서 풍어와 해상안전을 빌었다. 서낭당에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와 배성주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배성주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낸 후 배성주를 위한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가장부터 차례대로 가족들을 위한 소지를 올렸다. 이때 소지가 잘 올라가야 배성주가 제물을 흔감한 것으로 여겼다.

④ 장담그기

정월에는 날을 택해 장을 담갔다. 이틀과 이례에는 벌레가 있다고 해서 장을 담그지 않았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도 “궂은 날에 장을 담그면, 짖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신이 있어 장을 담그지 않았다.

54. 울진지역에서는 토정비결을 ‘청낭계’, ‘청낭기’, ‘청남개’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이때의 ‘청낭’은 아마도 중국 진(晉)나라의 곽공(郭公)이 지었다고 하는 오행(五行), 천문(天文), 복서(卜筮)에 관한 책인 청낭중서(青囊中書) 또는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名醫)인 화타(華陀)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부전 의서인 청낭비결(青囊秘訣)의 ‘청낭’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비서(秘書)라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2) 봄

(1) 이월

① 초하루, 영등제

이월 초하루에는 시루떡을 만들어 ‘영등고사’를 지낸다. 이날 비가 오면 영등할매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바람이 불면 딸을 데려온다고 여겼다. 비가 오는 것은 며느리 치마가 젖도록 하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은 딸의 치마가 바람에 실랑실랑 잘 날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영등할매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눈이나 비가 와야 그해 미역 농사가 잘된다 고 여겼다. 제수 준비가 끝나면 부엌과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제사상을 차린 후 절을 한 뒤에 소지를 올렸다. 영등할매 소지를 올리고, 이어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빌었다.

제사를 마치면 떡과 음식을 가족들끼리만 나눠 먹었다. 영등제를 지낸 뒤에는 영등할매가 올라가는 이월 보름까지 장독대나 마루에 상을 차려놓고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를 한 대접 떠 놓았다. 영등할매가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해사에 나가지 않았다.

② 입춘, 입춘첩붙이기

입춘에는 대문이나 대들보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의 글귀를 써서 붙였다. 입춘첩을 문에 붙일 때는 집안에 많은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들 입(入)’자 형태로 붙였다.

(2) 삼월

① 초이레, 성주생일고사

삼월 초이레는 서낭당의 신축일로서 ‘성황당성주생일고사’를 지냈다. 약 십 년 전까지는 성주생일고사를 지내기 일주일 전에 생기를 맞춰 제관을 선출했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이 돌 아가면서 제관을 맡는다.⁵⁵

55. 동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월제사[시월에 지내는 동제]’ 항목을 참조하기를 바람.

3) 여름

(1) 사월

① 청명·한식, 산소 손질하기

청명과 한식은 산소를 찾아 손질했다.

② 초파일, 절에 가기

초파일에는 절을 찾아 연등을 달고 불공을 드렸다. 연등에는 집안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를 적었다.

③ 산멕이기

이 마을에서는 ‘산멕이’를 “산동우 모신다.”라고 한다. 산멕이는 정월에 날을 받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초파일에 모시는 것이 보통이었다. 산동우는 주로 외양간이나 도장방 등에 두었으며, 햇보리와 햇나락을 번갈아 넣었다. 곡식을 갈아 넣을 때 나오는 묵은 곡식으로는 밥을 지어서 가족끼리만 먹었다.

산멕이를 할 때는 경단처럼 동그랗게 빚은 ‘동두깨비’와 어물, 과일, 제주 등을 제물로 준비했다. 제물을 준비하면 산멕이를 하는 자연물을 찾아갔다. 자연물은 대개 한지를 실타래로 묶어둔 소나무였다.

산멕이를 하는 곳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금줄을 친 다음 나무에 묶인 한지를 갈아주었다. 이어서 주부가 제물을 차려놓고 정성껏 절을 한 뒤 비손을 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가족들을 위한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사방에 던졌다. 남은 음식은 싸와서 식구들끼리만 나눠 먹었다.

④ 소만, 영풀베기

소만 무렵이 되면 노반계의 좌상이 풀을 베는 날과 장소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를 “영 내린다.”라고 했다. 영이 내리기 전에 함부로 풀을 베면 노반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징책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풀을 벨 수 없었다. 마을에서는 주로 ‘앞재산’, ‘마골산’, ‘버루골’ 등으로 가서 풀을 뺐다.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서는 일꾼을 고용해 풀을 베려 가기도 했다.

농사의 규모에 따라 이틀에서 닷새 정도 풀을 베는데, ‘참풀’이⁵⁶ 풀 중에서도 가장 질이

56. ‘참풀’은 참나무 새순을 말하는 울진 말로서, 참풀 이외의 풀은 보통 ‘잡풀’이라고 한다.

좋아서 참풀을 먼저 벤 뒤에 다른 풀을 베었다. 참풀은 따로 묵혀두지 않고 바로 논에 깔아 두어도 잘 썩기 때문에 퇴비로 그만이었다.

(2) 오월

① 단오, 약쑥베기

단옷날 해가 뜨기 전에 약쑥을 베어 짚으로 엮어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말렸다. 말린 약쑥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자래[배탈]’가 났을 때 가루를 내어 물에 타 마시면 효과가 좋았다. 또한, 관절이나 근육이 아플 때는 약쑥을 비벼서 뜸으로 사용하고 머리가 아프면 베개에 넣고 자기도 했다.

② 창포머리감기, 궁궁이꽃기

단오에는 여자들이 궁궁이와 ‘쟁피[창포]’, 약쑥, 수양버들 등을 함께 넣어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에 윤이 난다고 믿었다. 여성들은 또 머리에 궁궁이를 꽂았다. 궁궁이를 꽂으면 머리에 이가 끓지 않고 늘 좋은 향기가 난다고 했다. 궁궁이는 장독대 부근에 심어놓는데, 특유의 향기 때문에 벌레들이 오지 않아 장독대 부근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었다.

③ 가신고사

단오에 가신을 모시기도 했다. 김진옥 씨 댁에서는 단옷날 성주와 지신, 조왕, 산동우를 모셨는데, 이를 위해 하루나 이를 전부터 제물을 준비했다. 제물로는 절편과 육고기, 나물, 명태, 열기, 제주, 과일 등을 형편에 맞게 준비했다.

성주상에는 절편과 육고기, 어물, 과일, 나물, 그리고 메와 미역국 등이 올라갔다. 그 뒤에는 지신을 모셨다. 지신은 ‘오방지신(五方地神)’이라고 해서 메를 큰 양푼에 담아 숟가락 다섯 개를 꽂아뒀다. 지신을 모신 뒤에는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마당 한구석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는 부엌에 있는 조왕신을 모시는데, 조왕상에는 육류를 올리지 않았다.

④ 그네뛰기

마을에서는 약 삼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뒤 ‘목조밭’에 있는 소나무에 그네를 매달았다. 부녀자들은 단옷날 아침 일찍부터 몰려와서 그네를 탔다. 이날 누가 그네를 잘 타는지를 두고 내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⑤ 월내, 써레씨시미

마지막 모내기를 마치면 써레질로부터 모내기에 이르기까지 일을 함께한 이들이 모여 술과 찰밥, 부침개 등을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써레씨심 한다.”라고 했다. 서로 품을 나눈 경우에 음식은 품앗이에 참여한 집의 주부들이 분담해서 장만하고, 농사의 규모가 커서 남의 품을 사서 한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내놓았다.

(3) 유월

① 유두, 바닷물에 몸 씻기

이 마을에서는 유두날을 ‘물 맞는 날’이라고 불렀다. 주민들은 이날 마을 앞의 바다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 더위를 덜 탄다고 했다.

② 삼복, 복제

‘복제(伏祭)’는 다른 말로 ‘용제(龍祭)’라고도 하며 초복이나 중복 중에 날을 잡아 지냈다. 대개 밀가루로 ‘노치’를 만들어 제물로 쓰지만, 잘 사는 집에서는 시루떡이나 백설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복제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쯤에 자신이 소유한 논으로 가서 지냈다. 논에 도착하면 노치를 한지 위에 올려놓고 절을 올린 후 한 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했다. 제사를 마치면 노치를 한지에 싸서 논 한가운데에 묻고 그 위에 대나무를 꽂은 다음 그 상부에 한지를 매달아 놓았다.

③ 복달임

복날 가운데 특히 더위가 한창인 말복 때에 친구들끼리 해안가로 가서 소라, 전복 등을 잡아서 삶은 뒤 술과 함께 먹었다. 특히 설국을 즐겨 장만했다.

④ 월내

밀을 수확하면 바닷물에 씻은 뒤 잘 말려 디딜방아나 정미소에서 가져가서 국수를 만들었다.

국수를 가져오면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서 애호박을 넣고 끓였다. 국수가 완성되면 마루나 안방에 좌정한 성주 밑에 소반을 놓고 국수를 올린 다음 가장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국수를 나눠 먹었다.

⑤ 마을총회

설달에 여는 마을총회를 ‘동네공사’라 하고, 유월에 여는 회의는 ‘상반기공사’라고 불렸다. 회의 날은 모내기를 끝낸 뒤 노반계에서 적당한 날을 잡았다. 회의를 하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이장이 주민들에게 알렸다. 회의는 보통 열 시쯤에 노반계의 주도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하반기에 진행된 마을의 주요 사업을 결산하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부녀자들이 준비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종일 놀았다.

4) 가을

(1) 칠월

① 월내, 풋굿

두벌논매기가 끝나고 밭농사도 크게 바쁘지 않은 칠월 중순 무렵이면 날을 잡아 ‘풋굿’을 했다.⁵⁷ 보통 풋굿을 할 때가 되면 “며칠에 풋구 먹는다.”라는 말이 오갔다. 당일 아침에 마을의 남성들이 함께 모여 골목이나 길가에 있는 잡초 등을 제거하고 길에 파인 곳이 있으면 흙이나 자갈을 채워 넣었다. 마을 청소와 치도(治道)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했다.

풋굿을 할 때는 각 집에서 혼편껏 음식을 가져왔다. 어떤 집에서는 막걸리를 한 동이 내오고 또 어떤 집에서는 호박전 등을 부쳐왔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풍물이 빠지지 않았다.

(2) 팔월

① 추석, 벌초, 성묘, 차례

팔월초순이 되면 집안의 남자들이 벌초하러 다녔다. 벌초는 거리가 가까운 조상 산소부터 시작해 먼 곳의 조상 산소까지 했으며 추석 전에 모두 마무리했다. 이정균 씨의 경우, 친척들과 상의해서 팔월 초하루에서 열흘 사이에 날을 잡아 벌초했다. 산소는 마을 뒤쪽 ‘산넘어재’에 네 위가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랫대 조상의 산소부터 벌초를 시작해 윗대 조상의 묘로 올라가면서 벌초를 하는데, 풀을 다 벤 후에는 챙겨간 주과포를 차려놓고 예를 갖췄다. 이렇게 벌초를 하고 예를 갖추면, 추석에는 따로 성묘하지 않았다.

추석 아침이 되면 햅쌀로 빚은 송편과 햅쌀로 지은 메, 그리고 햇과일 등을 올리고 차례

57. 울진지역에서는 ‘풋굿(草宴)’을 ‘풋구’, ‘농구술먹기’, ‘농구먹이기’, ‘풋술먹기’, ‘손모둠먹기’, ‘머슴대접’, ‘풀찌기’, ‘초군모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아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표제어를 풋굿으로 통일해서 제시한다.

를 지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음복과 식사를 하고 가까운 묘소를 찾아가 성묘를 했다.

② 월내, 제미고사

첫 곡식이 나올 때가 되면 ‘제미고사’를 지냈다.⁵⁸ 제미고사는 햇곡식을 먹기 전에 조상을 대접하는 것인데, 본격적인 수확을 하기 전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제미고사를 지내기 위해 아직 덜 여문 벼를 조금 벤 다음, 낱알을 훑어내서 삶고 나서 다시 햇볕에 잘 말렸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삶는 작업인데, 잘못 삶아내면 방아 짚는 도중에 나락이 부서졌다.

햇볕에 잘 말린 나락을 도정하면 약간 누런빛을 내는 쌀이 나왔다. 쌀이 준비되면 제물로 메와 쟁, 나물과 과일 등을 장만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도와준 조상의 은덕에 감사드리며 제사를 지냈다. 제미고사에는 기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을 함께 모시는데 그 절차는 차례와 같았다.

5) 겨울

(1) 시월

① 월내, 시제

시월에는 문중마다 시제를 지냈다. 제물은 위토를 경작한 문중원이 준비했다. 제물로 올리는 메는 햅쌀로 짓고, 탕은 무와 두부, 소고기 등을 넣고 끓였다. 쟁은 콩나물을 넣고 끓이고 어물은 열기, 가자미, 명태 등을 체에 받쳐 가마솥에 쪘다. 육고기로는 닭고기와 소고기를 썼다. 닭은 삶아서 올리고 소고기는 산적을 만들어서 올렸다. 제주는 막걸리를 담가 항아리 위쪽의 청주를 떠서 사용했다. 떡은 하루 전날 시루떡과 절편을 만들어 제물로 썼다. 이 밖에 삼실과와 포를 올렸다. 시제를 올리는 당일 아침에 초현관, 아현관, 종현관 등 제 집사를 뽑았다. 초현은 장손이 맡고 아현과 종현은 문중 어른이 맡았다. 집사분정을 마치면 제물을 진설한 뒤에 시제를 진행했다. 시제를 마치면 음복을 하고 남은 제물을 문중원들에게 조금씩 나눠 주었다. 이를 ‘봉치나눈다’고 한다.

58. 팔월 초순에 조금이라도 벼를 수확할 수 있으면 햅쌀로 제미고사를 지낸 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만, 추석 무렵에야 수확이 가능하며 추석차례로 제미고사를 대신했다. 또한 추석에도 햅쌀로 차례를 지낼 수 없으면 종구에 제미고사와 차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닌 ‘종구차례’ 또는 ‘종구고사’를 지냈다. 이런 현상은 울진지역에서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동제

주민들은 동제를 ‘동제사’라고 했다.⁵⁹ 동제는 삼월과 시월에 지내는데 주민들은 ‘시월제사’, 즉 시월에 지내는 동제를 더 중시했다. 마을에는 서낭신 부부가 좌정해 있다. 주민들은 이들을 서낭할배, ‘숫서낭’, 서낭할매, ‘당주할매’, ‘암서낭’ 등으로 부른다. 서낭할배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서낭할매는 풍어를 관장하는 것으로 여긴다.

동제는 “좋은 날을 받아서” 밤 여덟 시에서 아홉 시 사이에 지냈다. 십 년 전에 별신굿을 할 때, 동제를 지낼 때마다 할매당까지 찾는 것이 번거로워 서낭할매를 할배당에 합사했다. 이때 무당이 신대에 “서낭할매를 받아” 할배당으로 모셨다. 그 뒤 동제를 지낼 때 더는 할매당을 찾지 않지만, 선주들은 여전히 이곳에 치성을 드린다.

제사 일주일 전에 주민들이 모여 생기에 맞춰 세 명의 제관과 제물을 장만하는 ‘제모(祭母)’를 뽑았다. 제관은 나이순으로 ‘상제관’, ‘중제관’, ‘하제관’이 되었다. 동제 사흘 전에 서낭당과 제관집, 마을회관, ‘큰웅굴’에 금줄을 쳤다. 금줄을 치고 나면 제관들은 가급적 집안에 머물면서 근신했다. 제비(祭費)는 성황사 기금으로 마련했다. 이 기금은 ‘바깥구시백’에 있는 세 마지막 규모의 동답에서 나온 소작료를 적립해서 마련한 것이다. 제수는 동제 하루 전에 제모와 깨끗한 여성들이 울진장으로 가서 구입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장에 도착하면 지난해 제수 목록을 참고해서 물건을 사되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

제관은 제사 시간이 다가오면 집에서 목욕재계했다. 그런 다음 깨끗하게 준비해 둔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유건을 썼다. 옷을 모두 갖춰 입으면 제물을 들고 서낭당으로 가는데 아무리 무거워도 제물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다.

서낭당에 도착하면 짚에 불을 붙여 입구에 ‘부정불’을 놓았다. 제관은 부정불을 타 넘으며 서낭당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짚불을 들고 “동네 모든 부정을 칩니다.”라고 말하며 서낭당 주변에 연기를 피웠다. 그리고 바가지에 담긴 물을 세 번에 걸쳐 흘려 뿐이며 “부정 칩니다! 부정 칩니다!”라고 말했다. 부정을 치고 나서 제물을 진설한 다음 초헌관이 분향하고 술을 올린 후에 재배했다. 그 뒤 차례대로 아현과 종현을 하고 종현을 마치면 유식을 하는데, 서낭신이 흡향하도록 일이 분간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초헌관이 헛기침해서 일어나도록 했다. 유식이 끝나면 첨잔을 하고 반배를 하며, 간과 바꿔놓은 물에 메를 세 숟가락 떠 놓았다. 이어서 제관들이 함께 재배하고 퇴주했다. 이어서 서낭당 밖에 메와 어물을 세 개의 접시 위에 엎어놓고, ‘수부’를⁶⁰ 대접했다. 수부를 대접하고 나면 제물을 종

59. 이하 봉평1리를 비롯한 죽변3리, 쌍전1리, 구산1리, 노음3리, 산포3리, 수곡2리, 수산리, 행곡1리, 신흥2리 등의 동제 관련 내용은 ‘한양명 외, 2010,『울진의 동제』상·하, 울진문화원·한수원(주)울진원자력본부’를 참고해 정리한 것으로서, 1960년대 이전의 전승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60. 주민들은 ‘수부’를 서낭신의 ‘사자(使者)’로 인식하고 있다.

류별로 조금씩 떼어서 서낭당 옆에 파놓은 구덩이에 넣는데, 이를 “제반한다.”라고 했다.

제사를 마치면 제물을 챙겨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음복을 한 다음 뒷정리를 했다. 이날 아침에는 주민들이 제물을 준비한 집에서 음복하고 제사 비용을 결산했다.

③ 텃제

‘텃제’는 주로 정월에 날을 잡아 지냈다. 텃제의 제물은 시루떡과 햅쌀로 지은 메, 고기와 제주, 감주 등이다. 텃제 당일 햅쌀로 메를 지어 마루에 있는 성주와 마당의 오방지신, 부엌에 있는 조왕을 위해 상을 차려놓았다. 신에 따라 제물이 다른데 성주상에는 준비한 제물을 모두 올리고, 조왕상에는 쌀밥에 주걱이나 숟가락을 꽂아 올렸으며 제주 대신 감주를 올렸다. 오방지신을 위하는 상에는 큰 밥그릇에 수저 다섯 개를 꽂고 떡을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성주, 조왕, 오방지신 순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다 지내면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올린 뒤에 성주상과 조왕상에서 밥 한 숟갈과 음식을 조금씩 떼어 한지에 싸서 아궁이에 넣었다.

(2) 동짓달

① 동지, 가신고사, 팥죽먹기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었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기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했다. 애기동지에 팥죽을 끓이면 어린아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을 끓이지 않았다. 팥죽을 끓이는 동안 집안에 아이를 가진 여성 이 있으면 태아의 성별을 점쳐보기도 했다. ‘새알’을 나뭇가지에 꽂아 아궁이에 넣었을 때 한 쪽이 툭 튀어나오면 아들로 여기고 둘로 갈라지면 딸로 여겼다.

팥죽을 다 수면 팥죽 또는 팥 삶은 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서 “올해 동지 팥죽이다!”라고 외쳤다. 이렇게 하면 잡귀와 부정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집안 식구들이 팥죽을 먹기 전에 성주와 조왕 등 가신에게 먼저 팥죽을 올렸다.

3. 산촌형[온정면 덕인1리]

1) 정월

(1) 설

① 차례

설을 이삼일 앞두고 가래떡을 만들었다. 설 전날에는 전을 부치고 탕에 들어가는 쇠고기,

무, 두부 등을 미리 손질해 두었다. 부침개는 무와 배추 등으로 만드는데, 오전부터 저녁 무렵 까지 부쳐야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갔다.

여자들은 설날 새벽부터 메와 탕, 나물 등을 준비했다. 나물은 고사리, 콩나물, 무 등을 속에 넣고 데쳐낸 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했다. 탕은 어탕, 육탕, 채탕을 준비했다. 아침이면 남자들이 차례 지낼 준비를 했다. 북쪽을 향해 병풍을 펼치고 지방을 붙인 뒤 그 앞에 상을 놨다. 제물을 다 차리면 대개 무축단헌의 절차에 따라 차례를 지낸 뒤에 음복했다.

② 세배

차례가 끝나면 집안의 어른에게 세배를 올렸다.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며느리나 손자에게 세뱃돈을 주기도 했다. 오후에 아이들은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 세배를 드렸다. 세배객을 맞은 집에서는 강정이나 떡국 등을 대접했다.

마을회관이 생기면서 세배하러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합동세배를 올렸다. 합동세배는 약 이십 년 전까지 계속됐다.

(2) 대보름

① 동제

1985년까지 대보름 자시에 동제를 지냈다. 주민들은 동제를 ‘동네제사’, ‘당제사’ 등으로 불렀다. 제관은 열이틀이나 열사흘에 선출했다. 이날 집마다 남자들이 한 명씩 꼭 참석해서 적당한 사람을 여러 명 추천했다. 그 가운데 깨끗한 사람을 가려 제관을 세 명 뽑았다. 제관 중 연장자가 제물을 만드는 판관집을 맡았다. 만약 제관에게 유고가 생기면 즉시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제관이 선출되면 주민들은 우물을 청소했다.

열사흘에 제관이 짚으로 완새끼를 꼬아서 금줄을 만들고 수구당, 판관집, 제관집, 우물 순으로 치고 황토를 뿌렸다. 제물로는 메, 갯, 탕, 백설기, 어물, 과일, 명태포 등이다. 술은 우물 청소를 하는 날 길은 우물물로 담가뒀다가 제물을 진설할 때 단지 채로 올렸다. 어물은 채반에 올려서 찐 뒤 진설할 때 제기에 옮겨 담지 않고 채반 채로 올렸다. 떡은 시루 채로 올렸다. 메는 동제 직전에 지었다. 밤 열한 시 경에 제관들과 판관집 안주인이 제물을 들고 수구당으로 향했다. 수구당에 도착하면 연장자가 바자지에 떠 온 물을 솔가지에 적셔 수구당 주변에 뿌리며 부정을 쳤다.

진설을 마치면 제관들이 함께 절을 두 번 올렸다. 단지 채로 술을 올리기 때문에 별도로 잔을 드리지 않았다. 이어서 유식하고 잠시 기다린 뒤에 제관들이 함께 재배하고 퇴주를 했다. 그런 다음 수구당소지, 제관소지, 각 호당소지, 가축소지를 차례대로 올렸다. 소지를 다 올리면 제물을 종류별로 조금씩 종이에 싸서 수구당 주변에 묻었다. 그런 다음 제물을 챙겨

서 판관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물에 들러 금줄을 걷었다. 판관집에 도착하면 제관들끼리 음복을 했다. 날이 밝으면 주민들이 판관집에 모여 제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음복한 뒤에 마을총회를 열었다.

② 마을총회

이날 오전에 주민들이 동제의 제물을 음복한 뒤에, 마을총회인 동네 공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동제 비용을 결산하는 한편 지난해 마을 행사와 마을 기금 운용 결과를 결산하고 새해의 마을사업에 대해서 논의했다. 회의가 끝나면 마을 기금으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점심을 먹었다.

③ 우물물 뜨기

대보름 새벽에 우물물을 뜨는 것을 “용물 뜯다.”라고 한다. 동제가 끝나면 여자들은 먼저 우물물을 뜨기 위해 경쟁했다. 대보름날 가장 먼저 뜯은 우물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그해 일이 잘 풀리고 풍년이 든다고 했기 때문이다.

④ 차례

대보름에 찰밥을 먹기 전에 조상제사를 올리는 집도 있었다. 이를 “농사밥 올린다.”라고 했다. 엄옥련 씨 댁에서는 대보름 새벽에 안방에 제사상을 차리고 찰밥, 탕, 어물, 삼색나물, 제주, 떡 등을 올렸다. 찰밥은 큰 양푼에 담고 가족의 수만큼 숟가락을 꽂았으며 쟁은 큰 그릇에 담아 하나를 올렸다.

상을 차리면 가장이 술을 따르고 절을 한 뒤 집안의 평안과 농사가 잘되기를 빌었다. 그런 다음 조상과 식구소지를 올렸다.

⑤ 찰밥, 오곡밥 먹기

우물에서 떠온 용물로 찰밥을 지었다. 찰밥을 달리 농사밥이라고 불렀다. 대보름에는 찰밥과 나물을 만들어 먹어야 농사가 잘된다고 여겼다. 찰밥은 찹쌀, 팥, 대추 등을 넣고 지었으며, 반찬으로 탕과 나물 등을 같이 준비했다. 탕은 무와 콩나물을 넣고 끓였으며 나물은 주로 말린 배추를 삶아서 무쳤다. 찰밥을 다 짓고 반찬을 장만하면 조상님께 농사밥을 올린 뒤에 식구들이 함께 찰밥을 먹었다.

주부는 찰밥을 먹은 뒤 찹쌀과 콩, 팥, 조, 기장, 수수 등으로 오곡밥을 지었다. 오곡밥은 이삼일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지어서 이웃에 나눠주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먹었다고 한다.

⑥ 귀밝이술 마시기

찰밥을 먹으면서 귀밝이술을 한 잔씩 마셨다. 대보름에 귀밝이술을 마시면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귀가 밝아진다고 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귀밝이술을 꼭 한 잔씩 마셨다.

⑦ 부럼깨물기

이날 아침에 호두나 밤, 콩 등을 깨물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이가 튼튼하고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⑧ 콩주워먹기

열나흘 밤에 콩을 볶아 방의 네 귀퉁이에 조금씩 놨다. 보름날 아침에 잠에서 깬 아이들이 “꺼저리 주워 먹자! 꺼저리 주워 먹자!”라고 하면서 콩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하면 방에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⑨ 새쫓기

아침을 먹고 난 아이들은 밭으로 나가 ‘후여! 후여!’라고 외치면서 새를 쫓았다.

⑩ 보리타작

아이들은 열나흘 오후에 수수깡으로 보리, 수수, 콩, 벼, 써레, 지게 등의 모형을 만들어서 놀다가 밤이 되면 거름더미 위에 꽂았다. 대보름 아침이 되면 거름더미로 가서 곡식 모형을 뽑아내 마당에 놓고 두들기며 타작하는 시늉을 하는데, 이를 “보리 두드린다!”, “나락 두드린다!”라고 했다. 다 두들긴 다음에는 신발에 곡식을 옮겨 담으며 “천 섬 났다! 만 섬 났다!”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리타작하도록 권장했다.

⑪ 찰밥 얻어먹기

대보름 오후에 아이들은 바가지를 들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찰밥을 얻었다. 아이들이 집 앞에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라고 외치면 여자들이 찰밥을 들고나와 바가지에 담아줬다. 아이들은 얻어온 찰밥을 디딜방앗간에서 손으로 집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되고 손에 거스러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⑫ 소점치기

대보름 저녁에는 밥과 나물을 솔뚜껑이나 쟁반에 담아 암소 앞에 놓았다. 이때 소가 나물

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밥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⑬ 개보름쇠기

대보름에는 종일 개를 굶겼다. 이날 개밥을 주면 텔갈이를 심하게 하거나 일 년 내내 벌레가 많이 꼬인다고 여겼다.

⑭ 달맞이

달이 뜰 무렵이면 앞산이나 매봉산 등에 올라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다. 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빌었다.

⑮ 달점치기

보름달을 보고 한 해의 강우량을 점치기도 했다. 달이 붉으면 비가 적게 오고 희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된다고 여겼다.

⑯ 산지띠기

산지띠기는 대보름이나 추석에 여자들이 하는 놀이였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연장자 두 명을 중심으로 편을 짜는데 보통 한 편당 열 명 내외였다. 편을 나누면 맨 앞에 한 사람을 세우고 나머지는 앞선 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섰다. 이때 맨 뒤를 꼬리라고 했다. 꼬리는 주로 날렵한 사람이 맡았다.

⑰ 윷놀이

주민들은 일손이 한가한 정월 내내 윷놀이를 즐겼다. 특히 대보름 명절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 윷놀이대회를 열기도 했다.

⑱ 줄당기기

약 육십 년 전까지 대보름 명절에 날을 잡아 자연마을 단위로 줄당기기를 벌였다. 대표로 ‘원덕인’에서는 정초에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이 모여 줄당기기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줄당기기의 날짜와 장소, 경비 등을 결정했다.

⑲ 지신밟기

대보름 명절에 날을 잡아서 지신을 밟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대곡에서 풍물을 배운 뒤 자체적인 풍물패를 꾸렸다. 그 뒤 풍물패는 마을을 벗어나 덕인2리와

3리까지 걸립하러 다니기도 했다.

(3) 월내

① 복조리걸기

정초에는 한 해 복을 기원하며 기둥이나 방안에 복조리를 걸어뒀다. 섣달그믐 밤이면, 마을의 청년들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직접 만든 복조리를 부엌이나 마당에 던져 놨다. 복조리를 매달기 전에 재물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동전을 넣거나 가세가 불처럼 일어나라는 의미로 성냥을 넣기도 했다.

② 신수보기

정초에서 보름 사이에 후포장이나 인근의 점장이를 찾아 신수점을 봤다. 그해 운이 나쁘거나 삼재가 들었을 경우 점쟁이가 알려준 대로 양밥을 하거나 적당한 날을 잡아 굿을 했다.

③ 장담그기

장은 대보름 직후부터 그믐까지 많이 담갔다. 말날, 닭날, 토끼날 등 “털이 있는 동물 날”에 담가야 장맛이 좋다고 했다.

정월에 장을 담그고 이월이 되면 초하루에 내려온 영등할매에게 “장맛이 좋아지게 해 달라.”라는 마음을 담아 영등할매가 올라가는 스무날까지 매일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서 장독에 올려두었다.

④ 패일

정월 초 닷새와 스무아흐례를 ‘패일(敗日)’이라 했다. 패일에는 못질이나 바느질 등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이날 길을 나서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기급적 마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

⑤ 널뛰기

널뛰기는 정월에 여자들이 넓은 집 마당에서 즐기던 놀이였다. 널을 만들 만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부엌의 선반으로 사용하다가 널뛰기를 할 때 꺼내 썼다.

(4) 설달

① 그믐, 수세

이날 저녁, 집안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를 드렸다. 또한, 밤새도록 집안의 불을 환히 밝혀 놓고 잠을 자지 않았다. 이날 잠을 자게 되면 눈썹이 센다고 믿었다.

② 월내, 마을총회

마을의 정기총회는 설달에 열었다. 일 년 동안 사용한 마을 기금의 결산과 자치규약변경, 이장을 선출한다. 회의가 끝나면 부녀자들이 준비한 국밥이나 국수를 먹었다.

(5) 윤달

윤달이 돌아오면 절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좋다고 했다. 그래서 이 절 저 절을 돌아다니면서 절 세 군데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달에는 ‘손(巽)’이 없다고 해서 이달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집과 화장실을 고치는 이들이 많았다. 윤달에는 산소를 손질하고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만드는 등의 일을 했다.

2) 봄

(1) 이월

① 초하루, 영등고사

이월 초하루를 영등날이라 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영등할매가 스무날 다시 올라간다고 여겼다. 영등날 비가 오면 영등할매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바람이 불고 날이 좋으면 분홍치마를 입은 딸을 데리고 온다고 했다. 주민들은 영등할매가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농사가 잘된다고 여겼다. 여자들은 새벽에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정화수를 길어와서 장독에 한 그릇을 올려놓고 가족의 건강과 풍농을 빌었다.

정화수는 영등할매가 올라가는 스무날까지 매일 새로 올렸으며, 묵은 정화수는 주부가 마셨다.

② 입춘, 입춘첩쓰기

입춘에는 대문에 입춘대길이라고 적힌 입춘첩을 붙였다. 입춘첩을 붙이면 잡귀와 액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다.

(2) 삼월

① 삼진날, 화전놀이

이월 하순 무렵 마을 여자들은 날을 잡아 화전놀이를 즐겼다. 화전놀이 준비물은 주로 노치를 구워 먹을 때 사용할 솔뚜껑과 밀가루, 기름, 술, 국수 등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댁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참꽃을 따고 나이 든 여성들은 돌을 괴어 화덕을 만들고 반죽을 하는 등 노치를 부칠 준비를 했다. 준비가 다 되면 노치를 몇 개 부친 뒤 일행 중 연장자가 산신에게 바치며 절을 했다. 나머지 여성들도 다 같이 절을 하면서 사고 없이 화전놀이가 끝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산신제가 끝나면 새댁들이 나서서 본격적으로 노치를 부치고 국수를 삶았다. 푸짐하게 부친 노치와 국수까지 먹고 술도 한 잔씩 곁들이면 흥이 났다. 그러면 바가지장단에 맞춰 화전가나 가곡, 트로트 등을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이 밖에도 수건돌리기, 달리기, 씨름, 진돌이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 여름

(1) 사월

① 청명·한식, 산소손질하기

이날은 산소를 손질해도 탈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허물어진 봉분을 보수하거나 잔디를 새로 입혔다. 또 상석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도 이날을 기다렸다가 했다. 산소를 돌보는 작업이 끝나면 주과포를 차려놓고 절을 한 뒤에 내려왔다.

② 초파일, 불공들이기

초파일에 불자들은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불공을 드렸다. 주로 찾는 절은 월송의 불광사, 서면의 불영사, 후포의 백암사 등이었다. 연등을 구입하면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고 매단 뒤에 집안의 평안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③ 소만, 영풀베기

소만 무렵에 풀의 성장 정도를 봐서 어른들이 “언제부터 풀을 베라고 영을 내리면” 매봉 산이나 덕산의 대곡으로 가서 함께 풀을 베는데, 이것을 “영풀 칸다.”라고 했다. 풀을 벨 수 있는 시기는 마을마다 다른데 어느 마을이건 “영 내리기 전”에는 풀을 벨 수 없었다.

온종일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풀 베려 갈 때는 밥과 참을 준비했다. 영풀베기는 짧게

는 이틀 길게는 닷새 동안 계속됐다.

(2) 오월

① 단오, 약쑥베기

단옷날 아침 일찍 약쑥을 베 온 뒤 짚으로 엮어서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렸다. 말린 약쑥은 배가 아프면 달여서 먹고,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뜰쑥을 만들어 뜸을 떴다. 뜰쑥은 약쑥을 손으로 비벼서 부드러운 가루만 모아서 만드는데, 딱딱한 줄기가 섞여 있으면 뜸을 뜰 때 따가워서 잘 골라냈다.

약쑥은 가축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소가 상처를 입었을 때 불에 달군 호미에 약쑥을 붙여 그 상처에 바르면 깨끗이 나았다.

② 창포머리감기, 궁궁이꽃기

단옷날에는 궁궁이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궁궁이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했다. 또 머리에 궁궁이를 꽂는데, 이렇게 하면 궁궁이의 특유한 향 때문에 머리에 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③ 그네뛰기

약 사십 년 전까지 서낭당 근처의 나무에 그네를 매서 뛰었다. 단오 전날 청년들이 그네를 설치하면, 단옷날 오후부터 새댁과 처녀들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탔다[놀이편 해당 항목 참조].

④ 월내, 써레씨시미

모심기가 끝나면 써레씨시미를 했다. 이웃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놀았다. 이를 “써레씨시미 한다.”라고 했다. 이날 사람들은 각자 떡과 술 등을 준비해 왔고 마을 기금으로 개나 닭을 잡기도 했으며 부농의 경우에는 특별히 찬조했다. 흥이 오르면 자연스레 풍물을 꺼내 들었다. 요란한 풍물 소리를 듣고 그때까지 오지 않았던 주민들이 서둘러 참석했다. 오늘날의 노동 축제인 셈이다.

(3) 유월

① 삼복, 복제

초복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복제를 지낸다. 초복에 지내지 못한 사람들은 중복에 지내기

도 한다. 복제 제물은 주로 시루떡이나 백설기이며 이를 ‘복떡’이라고 했다.

복떡이 마련되면 자기 소유의 논밭으로 가서 차려놓고 술을 한 잔 올리고 절을 하면서 풍농을 기원했다. 제사가 끝나면 복떡을 한지로 싸서 논밭의 한가운데에 묻고 그 위에 한지를 길게 매단 대나무를 꽂았다.

② 복달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집마다 보양식을 만들어 먹기 힘들었다. 그래서 가끔 마음 맞는 친구끼리 돈을 모아 닭이나 개를 잡아탕을 끓여 먹었다.

4) 가을

(1) 칠월

① 칠석, 불공들이기

불자들이 절에 가서 가족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② 백중, 불공들이기

백중에는 불자들이 절에 가서 죽은 조상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③ 월내, 풋굿

논매기가 끝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노는데, 이를 “초군 먹는다.” 또는 “초연(草宴) 먹는다.”라고 했다. 이날 주민들은 마을 기금으로 마련한 술과 음식, 그리고 각자 형편껏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마시고 풍물을 치면서 놀았다. 마을 기금은 ‘속전(贍錢)’과 ‘재방소’를 받아들이면서 모은 것이다. 속전은 소가 남의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을 해치면 벌금으로 내는 돈이었다. 당시에는 십 대 초중반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소꼴을 먹이러 다녔으며, 그 우두머리를 ‘채쟁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방과 후 집에서 소를 끌고 나와 채쟁이의 지휘 아래 마을 뒷산으로 풀을 먹이러 갔다. 이때 무리에서 이탈해서 남의 곡식을 해치는 소가 있으면 채쟁이가 소 주인에게 벌금을 받거나 손바닥을 때렸다. 다른 마을의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 주인이 돈을 받으려 오기도 했다. 집에 아이들이 없으면 채쟁이에게 돈을 주며 소 관리를 부탁했다. 이를 ‘재방소 넣는다.’라고 했다.

풋굿날에는 이장이나 반장이 ‘초군에 나오소! 초군에 나오소!’라고 구석구석 외치며 다녔다. 주민들은 형편대로 술과 떡 등을 준비해서 이장 집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겼다. 이날은 ‘머슴들 잔칫날’이기도 했다.

④ 외서리

논매기와 조밭매기를 마치면 부녀자들이 날을 잡아 외서리를 갔다. 외서리를 가서 참외와 수박 등 제철 과일을 사 먹었다. 이런 외서리는 1970년대부터 후포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⑤ 밀천신

처음 수확한 밀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수확한 밀은 디딜방아로 빻은 뒤 반죽을 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썰어 국수 면을 만들었다. 끓인 물에 면과 애호박을 넣고 국수를 만들었다. 국수가 다 되면 안방에 상을 펴고 국수 한 그릇과 간장을 올렸다. 그러고는 주부가 절을 하고 밀농사가 잘되게 도와준 조상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농사도 잘되게 해달라고 비손을 했다. 이를 두고 “국수 제미한다.”라고 했다.

국수를 삶을 때는 양을 넉넉히 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및 이웃들과도 나눠 먹었다.

(2) 팔월

① 추석, 벌초, 성묘

팔월 초순부터 벌초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마쳤다. 벌초를 마치면 간단히 주과포를 차리고 절을 하면서 “벌초를 마쳤으니 편히 지내시라.”라고 배례를 했다.

추석 아침에 조상 차례를 지낸다. 차례의 절차는 설 차례와 같다. 차례가 끝나면 식사를 한 뒤에 제물을 쟁겨 성묘했다.

(3) 구월

① 중구, 차례

햅쌀이 나지 않으면 묵은 곡식으로 추석 차례를 지내거나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이럴 경우 햅쌀이 나면 중구에 차례를 지냈다.

중구차례는 햅쌀이 나자마자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며 지내는 제미고사와 추석차례의 의미를 겸한 것이었다.

5) 겨울

(1) 시월

① 월내, 시제

시월이 되면 집안마다 날을 잡아서 시제를 지냈다. 이달에는 시제에 쓴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떡달’이라 부르기도 했다. 떡은 주로 절편이나 시루떡을 많이 했다. 시제를 지내고 나면 제물로 쓴 떡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2) 동짓달

① 동지, 팥죽먹기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었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기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 이후에 들면 노동지라 했다. 애기동지일 경우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팥죽을 쑤어 먹지 않았다. 애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아이가 많이 아프고 해를 입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팥죽을 다 쑤면 대문, 부엌문과 천장, 기둥 주변에 뿐리며 부정을 쳤다. 그런 다음 도장방 안에 있는 쌀독 위에 팥죽 한 그릇을 올려 조상을 대접했다. 집안에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새알을 가지고 태아의 성별을 점치기도 했다. 나뭇가지나 긴 꼬챙이에 새알을 꽂은 뒤에 아궁이에 넣어서 구운 다음 가운데가 튀어나오면 아들이고 갈라지면 딸이라고 여겼다.

(3) 설달

① 그믐, 묵은세배

그믐날 밤에는 집안 어른들께 묵은세배를 드렸다. 또한 집안에 불을 밤새도록 밝혀두는데, 이렇게 해야 일 년 내내 환하고 밝은 일만 있다고 했다. 그믐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며 아이들을 재우지 않았다.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밀가루를 칠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6) 윤달

윤달은 남의 달, 공달이기 때문에 ‘기둥뿌리를 빼서 거꾸로 꽂아도 탈이 안 난다’라고 여겼다. 고령의 어른이 있는 집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장만했다. 윤달에 수의를 지으면 옷 주인이 무병장수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사나 집수리, 묘 이장 등 평소에는 특별히 날을 잡아서 해야 할 일들을 몰아서 했다.